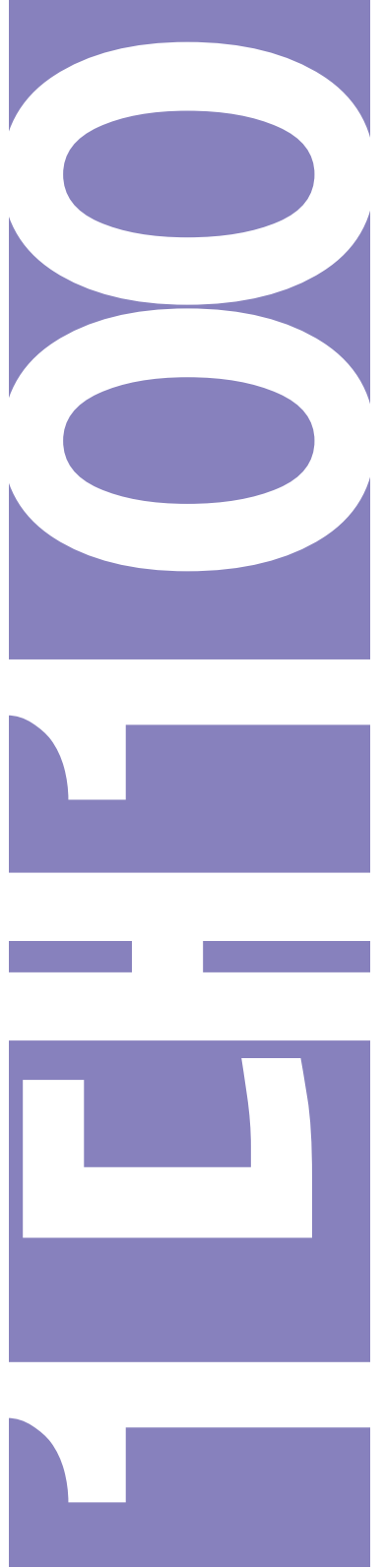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국어를

만들어 드립니다. -김도성T-

[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014년 수능 B형]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을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의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1:100

- 1) 베토벤 교향곡은 작품 내적인 원리와 외적인 원리가 어우러져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다. (O, X)
- 2) 베토벤의 작품 내적인 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된 음악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O, X)
- 3) 작품의 외적인 원리에는 빈의 청중의 음악관, 독일 비평가들의 관점, 천재성 담론 등이 있다. (O, X)
- 4) 만약 베토벤이 교향곡에 가사를 넣었다면, 슐레겔과 호프만은 베토벤을 지금처럼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겠
군. (O, X)
- 5)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은 베토벤을 통해 이루어졌다. (O, X)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2.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3.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 ③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주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 정 답 >

O, X, O, O, X

⑤, ④, ①

1:100	O, X 문제
1) 베토벤 교향곡은 작품 내적인 원리와 외적인 원리가 어우러져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다. (O, X)	
해설] O 2문단 첫 번째 줄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의도] 이 문제의 경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부분만을 보고도 작품 내적인 원리 뿐 아니라, 외적인 원리가 작용하였음을 예측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문형이 나온다면 앞으로 나올 주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했을까?’ 그럼 후에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앞 문장에서 내적인 원리가 나왔으니, 뒤에는 외적인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과 앞으로 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서술될 것이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들이 외적인 원리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00	O, X 문제
2) 베토벤의 작품 내적인 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된 음악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O, X)	
해설] X 1문단 세 번째 줄 「베토벤은 으름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의도] 앞서 봤던 2강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순서 문제에 해당 하는 것이죠. 지문에서는 (단순한 소재 착상 →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이었지만, 문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된 음악 → 단순하게 만든다.)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가공 된 음악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문제겠죠. 언뜻 순서만 바뀐 단순한 문제 같지만 지문과 전혀 다른 맥락의 글이 적혀있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답을 고르셨다면, 꼼꼼하게 지문과 문제를 잘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순서와 함께 글 자체의 맥락이 맞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모두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3) 작품의 외적인 원리에는 빈의 청중의 음악관, 독일 비평가들의 관점, 천재성 담론 등이 있다. (O, X)

해설] O

2문단 첫 번째 줄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의도]

제가 냈던 문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취지는 1대 100이라는 강의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다가 문득,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낸 문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구조도를 생각하며 지문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낸 문제입니다.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이 작품 외적인 원리에 들어 가 있는 요소라는 것을 거시적 접근법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 들어가는 미시적 접근법을 활용하자는 의미의 문제입니다.

- 작품 내적인 원리 : 단순 소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 작품 외적인 원리 : ①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②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③천재성 담론

이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안을 채워가는 진정한 거시적 접근법과 미시적 접근법을 통한 독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100	O, X 문제
4) 만약 베토벤이 교향곡에 가사를 넣었다면, 슈레겔과 호프만은 베토벤을 지금처럼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겠 군. (O, X)	
해설] O 3문단 세 번째 줄 「당시 청중의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 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의도]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지문 속의 내용과 인물들의 주제를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물어본 것입니다. 지문에 서는 분명히 ‘순수 기악’만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오면 반드시 인물들 의 입장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밖에 정리되지 않습니다.(1:100강의 1강 참고. 무료임.) 그것을 통해, 인물들의 입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같이 적용하여 풀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지문에 나오는 인물들 사이의 입장 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인물들이 지문 속 내용과 맞는지 판단하며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 인트가 되겠습니다.	

1:100	O, X 문제
5)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은 베토벤을 통해 이루어졌다. (O, X)	
해설] X 2문단 두 번째 줄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의도] 앞서 풀어봤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정적 흐름에 대한 주의를 목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면, 이 부분은 긍정적 흐름에 대한 주의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지문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편견에 빠지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문에서는 실제로 독일 민 족의 암묵적 염원은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토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을 보면 독일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독일이 베토벤을 통 해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섰다는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문에 없는 내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글 의 흐름을 통해 확대 해석을 통해서 결론짓는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